



‘한드’ 리메이크 ‘미드’ 한류 이끄나

〈한국드라마〉

〈미국드라마〉

인기드라마 ‘굿닥터’美서 ‘더 굿닥터’로 재탄생

대니얼 대 김 대표, 끈질긴 노력 끝 제작 성공

미국 ABC방송서 25일부터 프라임타임 방영

첫 방송을 앞두고 홍보 예산만 150억원. 웬만한 한국영화 제작비다. 버스 정류장, 각종 전광판 등에 포스터가 붙어있고, 방송과 온라인에서는 예고편이 수시로 나온다.

한국 드라마 ‘굿닥터’를 리메이크한 미국 드라마 ‘더 굿닥터’(The Good Doctor)의 오는 25일 첫 방송을 앞두고 미국 지상파 ABC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더 굿닥터’는 ABC에서 25일부터 매주 1회 프라임타임(서부 밤 9시, 동부 밤 10시)에 방송된다. 한국 드라마 리메이크작이 미국 지상파의 정규시즌, 프라임타임에 편성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드라마 성적이 한류업계의 시선이 집중돼 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정국으로 중국으로 향하던 한류 물결이 막힌 가운데, 난공불락으로 여겨졌던 미국 시장이 한류의 새로운 수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 ‘더 굿닥터’까지 3년...한국과 전혀 다른 스케일·제작과정
2013년 11월에 미국서 처음 리메이크가 추진된 ‘굿닥터’가 ABC 편성을 받기까지는 3년여의 시간이 필요했다. 올 5월에야 최종 결정이 났다.

‘굿닥터’는 2013년 8월 KBS 2TV에서 방송돼 사랑받은 드라마로, 지폐중에 걸린 천재 의사 이야기를 조명한 휴먼 의학 드라마다. 이 드라마의 리메이크를 추진해온 KBS아메리카의 유진식 대표는 8일 전화통화에서 “너무 힘들었다”고 잘라 말했다.

미국과 한국의 제작 시스템이 너무 다르고, 계약 조건도 복잡한 데다 한국식 이야기를 미국식으로 바꾸는 과정도 지난했다. 심지어 처음에 리메이크를 손잡고 추진하던 CBS 방송이 2015년 1월 손을 떼고 나갔다.

‘굿닥터’의 리메이크는 그렇게 좌초되는 듯했다. 그전에도 많은 한국 드라마의 미국 리메이크 프로젝트가 흐지부지돼버렸기에 새로운 뉴스도 아니었다.

그러나 미국 프로덕션 3AD의 대니얼 대 김 대표가 포기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계속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굿닥터’ 프로젝트는 심폐소생에 성공했다.

미국 드라마시장에서는 1~2년 내에 승부가 나지 않으면 프로젝트가 대개 무산된다. 하지만 대니얼 대 김은 인기 미드 ‘하우스’의 작가이자 미국 작가협회장을 맡은 데이비드 쇼어를 영입해 ‘굿닥터’를 다시 만지기 시작했고, 쇼어가 붙자 메이저 스튜디오 오소니픽처스 텔레비전이 제작에 뛰어들었다.

그렇다고 바로 방송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겨우 파일럿을 제작하는 단계. 30분짜리 파일럿을 제작하는 데까지도 험난한 과정을 거처온 ‘더 굿닥터’는 올 1월 ABC로부터 파일럿 제작 승인을 받았다.

파일럿은 방송사 내부 시사용이다. 이것을 보고 방송사는 정규 편성을 할지 결정한다. ‘고작’ 30분짜리 내부 시사용 파일럿이지만 제작에는 막대한 비용이 투입된다. 한국과 전혀 다른 스케일, 제작과정이다.

‘더 굿닥터’는 4월24일 44분4초 분량의 파일럿을 ABC에서 시설했다.

유 대표는 “이 다음부터는 피 말리는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파일럿을 보고 가을 시즌에 편성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5월11일 드디어 ‘더 굿닥터’의 편성이 결정됐다.

유 대표는 “당일 ABC가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2분29초짜리 ‘더 굿닥터’ 예고편의 조회수가 2개월 만에 3000만 뷰에 육박하고, 퍼가기는 23만 번, 댓글은 7만 건이 넘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다”며 “이러한 반응에 고무돼 ABC가 ‘더 굿닥터’에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 시즌제에 대한 기대...“시즌5까지 가면 대박”
‘굿닥터’에 앞서 SBS TV가 2014년 방송했던 ‘신의 선물’이 ‘썸웨어 비트윈’(Somewhere Between)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7월부터 ABC에서 방송됐다. 그래서 정확히는 ‘신의 선물’이 한국 드라마 최초의 미국 리메이크작이다.

그러나 미국 방송사는 정규시즌, 여름시즌, 미드시즌으로 나눠 작품을 구별한다. 정규시즌은 9월 말부터 이듬해 4월까지로 가장 시청률도 높고 광고비도 비싼 시즌이다. 이때 방송사들은

시즌제로 갈 가능성이 높은 드라마를 선보이게 된다. 보통 에피소드 13개에서 시작해 23~24개로 한 시즌이 구성된다.

반면 여름시즌은 광고시장 비수기인 6~9월에 에피소드 10개로 만들어져 편성되는 드라마다. 시즌제로 가지 못하고 여름에만 틀고 끝난다. 미드시즌(Midseason Replacement)은 정규시즌으로 출발했으나 시청률이 좋지 않아 조기 종영한 드라마의 자리를 대신해 대체 편성되는 드라마를 말한다. 미드시즌 역시 10개 내외의 에피소드로 제작된다.

유 대표는 “‘굿닥터’의 리메이크 제작이 갖는 남다른 의미는 ‘정규 프라임 타임 시즌’으로 편성되었다는 것”이라며 “정규시즌은 썸머시즌이나 미드시즌에 비해 시청률도 높고 제작비도 2배 이상 투입된다”고 전했다.

앞서 행사차 방문했던 대니얼 대 김은 “제작비를 바랄 수는 없지만 ABC가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다”며 “에피소드 13개를 먼저 찍고 반응이 좋으면 5개를 추가로 더 찍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작자이기에 앞서 배우인 대니얼 대 김이 김윤진과 함께 출연한 미드 ‘로스트’는 회당 제작비가 1000만~1400만달러(한화 약 112억~158억원)에 달했다.

대니얼 대 김은 ‘더 굿닥터’의 시즌제 가능성에 대해 “내가 비싼 작가 데이비드 쇼어를 섭외한 이유가 그것”이라며 “시즌제로 가면 우리의 캐릭터를 오랜 기간에 걸쳐 발전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미국 방송사에서 편성을 받는 것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임을 체했었다”며 “하지만 중국 시장이 막힌 상황에서 미국 시장은 아주 중요하고 계속 도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에서 방영된 드라마 중 가장 많은 시즌이 제작된 드라마는 ‘로 앤 오더’(Law&Order)로 시즌 20까지 하고 2010년에 종영했다.

유 대표는 “한류 드라마는 언어의 문제로 미국 지상파는 물론, 케이블 TV에서도 방송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한류 드라마가 미국 주류 시장에 파고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리메이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통쾌한 반격 사이다 복수

‘언니...’ 시청률 20% 돌파

SBS, 시청자 성원에 4회 연장결정

SBS TV 토요드라마 ‘언니는 살아있다’가 막판 시원한 복수를 기대하게 하는 전개와 프리미엄CM(PCM) 효과에 시청률 20%를 넘었다.

10일 시청률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50분부터 2회 연속 방송한 ‘언니는 살아있다’는 43회는 전국 평균 시청률 9.7%-17.7%를 기록했으나 44회에서는 19.6%-21.1%를 기록했다.

SBS는 지난 주부터 이 드라마에 PCM을 도입, 기존 1회 분량이 30분씩 두 개로 쪼개졌다. 전날 경우에도 마지막 30분이 20%를 넘긴 셈이지만 어쨌든 자체 최고 시청률을 달성하는 데는 성공했다.

다른 주말극 KBS 2TV ‘황금빛 내 인생’은 22.4%, MBC TV ‘밥상을 차리는 남자’는 5.9%, MBC TV ‘도둑놈 도둑님’은 8.0%를 기록했다.

전날 ‘언니는 살아있다’에서는 민들레(장서희 분)가 세라 박 행세를 하는 양달희(다솜)의 정체를 알았다. 설기찬(이지훈)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이계화(양정아)와 구세경(손여은)에게 자신을 기습했던 인물이 달희임을 귀띔했다.

지난 4월 15일 6.6%로 출발한 ‘언니는 살아있다’는 토요일에 2회 연속 편성됐다. KBS 2TV 주말극 시청률까지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MBC TV 주말극은 상대해보겠다는 전략이었다. 실제로 전날 시청률은 오후 9시대 방송하는 MBC TV ‘밥상을 차리는 남자’와 10시대 ‘도둑놈, 도둑님’을 모두 제쳤다.

이 드라마는 김순옥 작가와 장서희가 ‘아내의 유혹’에 이어 8년 만에 재회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인생의 바닥을 친 ‘언니’ 3명이 재기하는 과정을 그렸다. 납치, 협박, 살인, 폭력, 복수 등 온갖 막장 요소에도 ‘사이다 한방’을 기대하는 시청자들의 기대가 쏠리고 있다.

이에 최근 연장이 결정됐다.

SBS는 “시청자 성원에 2주 연장을 결정했다”며 “이달부터 프리미엄CM(PCM)을 도입했지만 기존 회당 70분 기준으로 하면 총 50회에서 54회로 연장됐다. 2주 연장 방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1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아시아의 전통시장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행복한 지도(재)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55 중계방송 국회 대표 연설	10 좋은 아침
10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 더불어민주당 4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살림하는 남자들	50 사람, 산	00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 더불어민주당 45 SBS 생활경제
11	40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재)	50 학교 2017(재)	5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재)		00 MBC 정오 뉴스 20 문화사색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토크림 55 열린공간 토크 Talk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2017 평창대관령음악제		10 헬로킴지 아하! 동물탐험대 2 55 드림 주니어 스페셜	55 닥터 365
2		00 영화가 좋다(재) 50 자동차부착성 위기 2	25 지오메카 55 꾸러기 식사교실	00 뉴스브리핑
3	50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재)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25 텔레몬스터 35 이불 밖은 위험해 스페셜	00 토크콘서트 화통
4	50 팔도밤산 스페셜			
5	00 KBS 뉴스 5 10 KBS광주 연중특별기획 남도스페셜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40 왕은 사랑한다(재)	00 SBS 오 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이름 없는 여자(재)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10 조작(재) 45 남씨의 생활 50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아리라다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루기	50 이름 없는 여자	15 왕은 사랑한다(재)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4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55 별벌대노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40 가요무대			
10	40 제44회 한국방송대상 대상 수상작 (임진왜란 1592)	00 학교 2017	00 왕은 사랑한다	00 조작
11	35 KBS 뉴스 55 이웃집 할스(재)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여행 길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2	45 생활의 발견	35 강력추천 배틀 트립	1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45 2017 서울드라마어워즈 출품작 가타드 1부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19:30 EBS 뉴스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때루 맞이해〉 - 인카의 맛을 찾아서)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5:00 요술 상자	19:55 다문화 고부 열전
06:0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오징어파리고추볶음과 파프리카냉국)	15:05 내 친구 아서	20:50 세계테마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오징어파리고추볶음과 파프리카냉국)	15:20 우주탐험가 잭	21:30 한국기행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11:20 세계테마기행(재)	15:35 모피와 친구들	〈명물찾아 섬관리〉 - 여화등등 내 사랑 비금도
- 마루의 어드벤처	12:00 EBS 정오 뉴스	15:45 코코몽 3	21:50 광복절 특집
07:30 로보카 폴리	12:10 글로벌 가족정하기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노래로 조국광복을 응원하다〉
07:45 총동! 슈퍼원스	-한국에 산다	16:30 두다다콩(재)	22:45 엄마를 찾지마
08:00 덩동명 유치원 1~2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6:45 덩동명 유치원 1~2(재)	23:35 까칠남녀
08:30 꼬마버스 타요	12:45 과학 다큐 비온드(재)	17:30 플라워링 하트(재)	〈남자들이여, 일어나라〉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3:40 엄마를 찾지마(재)	17:45 호기심나라 오키도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8:00 생방송 토크! 보너스! 1~4	〈연애에 밀당이 중요한 이유?〉
		19:0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24:30 세계의 드라마 (폴다 6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1일(음 7월 21일 辛丑)

子	48년생 의도는 좋으나 호응이 약한 것이 아쉽다. 60년생 풍설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 72년생 양쪽의 사이에 끼어들면 그 때부터 고난의 연속이 될 여지가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84년생 상당히 많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3, 70	午	42년생 협력하여 추진해야 성사된다. 54년생 경미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66년생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형세이다. 78년생 행운의 폭포수가 우렁찬 소리를 내며 떨어지리라. 90년생 저변의 구조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46, 56
丑	49년생 무방비 한다면 뒤통수 맞는 꼴을 야기할 수도 있다. 61년생 침으로 가가 마칠 것이다. 73년생 마음이 설레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다. 85년생 형세가 전환하는 단계이므로 더 아파 되지는 않으리라고 본다. 행운의 숫자 : 04, 38	未	43년생 도약하고 있는 단계. 55년생 반복되는 과정에서 실마리를 찾게 된다. 67년생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않도록 하자. 79년생 결과가 미지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91년생 생활에 바탕이 되는 것이니 모두 챙겨 두도록 하라. 행운의 숫자 : 33, 18
寅	50년생 기회들이 드러난다. 62년생 폐단은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4년생 의지만 있다면 무궁무진한 발전이 보인다. 86년생 때사에 신중하지 않는다면 의외의 난재를 만나서 남으로부터 욕됨을 당할 수도 있음을 알라. 행운의 숫자 : 26, 51	申	44년생 초심을 잃지 말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 하는 것이 가장 중한 때이니라. 56년생 수단이나 방법에 흠집이 보인다. 68년생 객관적인 면에 착안해서 주력할 필요가 있다. 80년생 알면서도 빠져드는 어려움속을 범하지 말자. 행운의 숫자 : 27, 63
卯	51년생 평상시에 찾던 것이 코앞에 와 있느니라. 63년생 제대로 갖추고 바르게 인식해야 활용이 가능하다. 75년생 할 말이 있으면 침묵 말고 해야만 한다. 87년생 기다리고만 있지 말고 직접 찾아가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40, 98	酉	45년생 아직은 일몰적이거나 변수가 보이기 시작한다. 57년생 본심이야 어떻든 간에 함께하려는 것이 무난하리라. 69년생 전체의 특색을 파악하고 조절해 볼 필요가 있다. 81년생 뭇줄이 반듯해야 모를 제대로 심을 수 있는 이치이다. 행운의 숫자 : 57, 28
辰	52년생 소신대로 행한다면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64년생 혼란스럽다가 차츰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국면이다. 76년생 관심을 가지고 이리저리 배려해 주는 이가 보인다. 88년생 인기가 상승하면서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6, 49	戌	46년생 상대의 유혹에 본심이 흔들릴 수도 있음을 알라. 58년생 비단 옷을 입고 밭길을 걷는 이치이다. 70년생 반복되는 횡수가 늘어나면서 적응하게 되리라. 82년생 평상시에 해오던 대로 하는 것이 제일 낫다. 행운의 숫자 : 65, 73
巳	53년생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사소한 것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 65년생 길조가 비추고 있으므로 전방위적인 확산일로에 놓여 있다. 77년생 인연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호기이니라. 89년생 생 무던하게 대하는 것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15, 09	亥	47년생 한 번 정해지면 이것저것 재려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행하라. 59년생 단단히 각오하고 부딪쳐야만 승산이 있다. 71년생 정은 정후라 하더라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의 주시하라. 83년생 공과 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행운의 숫자 : 71, 91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